

아토그래피를 적용한 초등 교사의 반편견 다문화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성 묘 진** · 김 선 아***

〈 요약 〉

우리 학생들은 복잡한 다원화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편견 없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에 교사 역시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교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에 초등 교사인 연구자가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총 7차시의 인종 편견 예방을 위한 다문화미술수업을 실행하고 수업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술기반연구인 아토그래피를 적용하여 교사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 결과물에서 도출한 세 가지 주제 '편견의 양상',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시각저널을 제작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세 가지 측면의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자기 연구' 측면에서 아토그래피는 언어적 텍스트 안에 경계 지어져있거나 접혀져 그냥 지나쳤던 자기성찰의 부분들을 화면에 시각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아토그래피는 세부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도록 반성적 시각을 확장시켜 준다. '예술기반연구' 측면에서 아토그래피를 통해 교사의 성찰이 예술적 행위인 시각이미지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성찰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예술만이 갖는 유동적이고 독창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들의 '은유와 환유'적 기능은 여러 현상을 더 다채롭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다문화교육' 측면에서 아토그래피 적용이 갖는 의미는 예술적 작업을 통한 몰입이 반편견 다문화 수업에 대한 교사의 문제의식과 다문화적 성찰을 공고히 해주었으며 학생들과 다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교사의 의식과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다.

주제어: 반편견교육, 다문화미술교육, 예술기반연구, 아토그래피, 자기연구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4975).

** 서울삼일초등학교 교사,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주저자

*** 한양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부터 교사의 표정과 언행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교육의 내용’이 되어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 교육자로서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사가 자신의 교수 행위를 되돌아보고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할 때에 핵심이 되는 것이 성찰(省察)적 시각이다. 교수행위의 질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교사의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수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Go, 2010), 이재용·이종연, 2015에서 재인용). 성찰적 시각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촌의 세계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에게는 보다 깊은 고민과 성찰적 실천이 요구된다. 21세기 이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에서는 민족, 국가라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탈피한 서로 다른 문화, 인종, 언어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특정지역의 다문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다문화사회가 갖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26만 2545명 중 63%인 16만 455명이 서남권(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머니투데이, 2017. 02. 21). 이러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급 안에서도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급 구성원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나 다문화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교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다문화적 현상들을 예상하여 보고 이를 고민하여 교육의 경험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 시대에 마주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으로 보거나 낯설음으로 인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편견이 가장 완고한 편견”이라는 말이 있다(허영식,

2010, p. 107).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편견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며 인간 생활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이러한 편견의 역기능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허영식, 2010). 알포트(G. W. Allport)는 편견을 그릇되고 완고한 일반화에 근거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견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추병완, 2012, 재인용).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편견적 성향(propensity)을 갖고 있으며 경험세계에 대한 과잉단순화를 나타냄으로써 편견이 발생하고, 발생한 편견의 표출은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김선아 외(2016)는 사회통합에 있어 비주류 집단이 갖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형성된 후에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지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기 때부터 편견적 성향을 갖지 않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복잡한 다원화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차이와 다양성’을 직면할 수 있는 교육, 즉 반편견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 또한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다문화미술교육이 학생과 교사에게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예술기반연구의 일종인 아토그래피를 적용하여 편견과 차별에 대한 교사 연구자의 의식을 분석하여 시각화하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 교사로서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미술교육에서의 반편견 교육

1) 다문화미술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해 온 다문화미술교육은 1960~7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을 계기로 학교와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의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맥피(June King. Mcfee)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을 교육에 적용하는데 있어 미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미술교육이 학습자

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유지하며 사회의 다양한 층위의 구성원들과 민족 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김선아, 2011, 재인용). 다문화미술교육에서 타자의 목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안혜리(2011)는 인종과 문화 집단 간의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타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오는 다른 피부색의 인종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미적 체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비판적 다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남영림(2015)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하기 위해서 타자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정보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미술교육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김선아 외(2016)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문화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차이와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민정(2014) 역시 문화적 정체성과 다문화 속에서 공존하는 타자와의 유기적 연대 문제, 문화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미학적 접근을 통하여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다문화 교육의 출발점이다. 인종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종·민족·사회계층·성별·종교 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의식과 차별적 태도를 극복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와 문화적 선택을 우선시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손지현, 2010).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이종일, 2010). 따라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에 미술을 통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토대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Anderson, T. Gussak, D. Hallmark, K. K. & Paul, A, 2010).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의 현실이 되

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자 옌스 포르스터(Jens. Forster)는 편견은 사람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차윤경·김미영·김선아, 2011, 재인용).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출발점은 그들을 집단 이미지로 동일화하는 편견적 의식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을 인격적 개인으로 존중하는 인권의 보장을 기저로 한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으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미술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그 바탕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미술교육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를 통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시도라 할 수 있다.

2) 반편견 교육의 중요성

반편견 교육이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토대로 하여 문화, 인종, 민족, 성, 종교 등의 모든 형태의 편견의식과 차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비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이인재, 2010). 이제는 학생들의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인종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다수집단인 한국인이 다문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접촉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거주 외국인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키워야 할 때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위한 정책 방향 등도 더불어 요구된다(정하나, 2016). 벅크스(James. Albert Banks, 2008)는 반편견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인종 등의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적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수업 교재에 일관적이고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인종·민족의 집단과 함께하는 간접 경험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출을 도움으로써 다양한 인종·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점차 다양성이 심화되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형성되는 편견은 초등학생 시기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따라서 반편견 교육은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 영역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초등학교 반편견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미비하여 학생들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정연, 2016). 이인재(2010)는 초등학생들의 편견이 아직 공고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 편견에 저항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능력을 균형적으로 기르는데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며 반편견 교육이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반편견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반편견 교육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 특성, 문화적 특징, 동기에 부합하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자료에 나타난 문화적 편견과 가정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기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세계와 연계되어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박윤경, 2006). 이러한 지적은, 같은 맥락에서 반편견 다문화미술교육을 고민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삶과 입장을 고려한 효과적인 내용과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전제되어야 할 교사의 성찰적 사고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속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다.

2. 예술기반연구의 개념과 특징

1) 예술기반연구의 개념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객관성, 확증주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적연구방법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연구자의 개인적 상상력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독자와의 해석적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예술기반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1980년대 이후 과학의 영역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온 '연구'에 있어서 창의적·미학적 접근이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아이스너(E. Wayne. Eisner)를 중심으로 스텐포드 대학에서 예술기반연구(arts-based research)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Eisner, 2006). 이후 현재까지 예술기반연구는 미학중심 연구(aesthetically-based research), 아토그래피(a/r/tography), 연구로서의 예술 활동(arts practice as research), 연구중심 예술 (research-based art) 등의 명칭을 가지고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Barone, 2006; Quinn · Calkin, 2008; Sinner 외, 2006).

예술기반연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기반 연구 자체가 사회학, 인류학,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함하는 혼성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과 연구 혹은 연구자-연구 대상-독자의 경계 또한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Cahnmann-Taylor, 2008). 따라서 롤링(J. Rolling)이 이제까지의 예술기반연구를 종합하여 제안한 다음 여섯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 예술기반연구의 개념과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Rolling, 2010). 첫째, 예술기반연구는 후기 구조주의적(poststructural) 실천이다. 즉 예술기반연구는 주관성이 사회적 구조 안에 놓여 있으며, 언어, 권력관계, 담론, 사회 제도 등이 교차하고 경쟁하면서 상호주관성을 구성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주관적 주체들의 상징적 표현과 이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의미를 생산, 재생산하는 방법이 된다. 둘째, 전구조주의적(prestructural) 실천이다. 예술기반연구에서는 연구 행위를 자기연구로서 살아있는 프락시스로 규정하고 연구자의 생생한 경험, 직관적 의식, 상징적 사고 등을 강조한다. 셋째, 수행적(performative) 실천이다. 예술기반연구의 독자성은 연구가 이야기, 춤, 이미지, 시, 음악 등으로 실험되고 공연되며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 넷째, 다원주의적(pluralistic) 실천이다. 예술기반연구에서는 텍스트가 즉흥적이고 집합적인 의미가 교환되고, 재해석되고, 융합되는 것을 허용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생성적(proliferative) 실천이다. 확장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담론의 변화, 모호성, 확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기반연구는 패러다임을 넘어서는(postparadigmatic) 실천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패러다임적 사고에서 벗어나 절충적이고 혼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위에 열거된 특성들은 예술기반연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자로서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정해진 규범이나 학습 성과가 아닌 교사 자신의 의식, 의사결정,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문화적’ 탐구란 교수행위를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으로 분절하지 않고 교사가 속한 사회적 맥락, 수업을 통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기반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미술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고 구체화하며 탐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2) 교사의 자기연구로서 아토티그라피(A/r/tography)

아토티그라피(A/r/tography)는 예술기반연구의 한 형태로서 “단순히 연구에 예술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 연구자, 교사로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연구 과정 속에서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강은영, 2016, p. 3). 즉 예술가(artist), 연구자(researcher), 교사(teacher)의 두음과 글쓰기를 뜻하는 graphy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토티그라피는 예술적 행위와 연구적 실천, 그리고 가르침의 사이(in-between)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교육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다(Irwin & Springgay, 2008).

앞서 논의한 예술기반연구의 전구조적 특징과 아토티그라피가 전제하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아토티그라피는 다문화미술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연구로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연구자(teacher researcher)로서 수업이나 연구를 반성적인 관점으로 되돌아보는 것을 자기 연구(self-study)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업이나 연구의 질을 분석하여 개선시키는 실천적 역할을 한다. 교사의 자기 연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혁규 외(2012)는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자세와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자기 연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자기 연구는 교사가 스스로 수업의 여러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배움을 얻게 된다. 교사 연구자가 자신의 교육적인 실천과 그 맥락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교육적 현상에 밀착하여 세심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연구자 개인을 넘어 존재하는 사회맥락적인 유의미함까지 발견할 수 있다.

교사가 실천적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에 늘 관심을 갖고 성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넬슨(Neilsen, 2008, 강은영, 2016, 재인용)은 아토티그라

피를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살아있는 연구(living inquiry)’로 소개하였으며 연구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허용하는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교사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하며 때로는, 예술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들 안에서 분리된 정체성들을 아토그래피를 통해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미 생성의 주체로서 교사가 자기의를 형성할 수 있다(Irwin & Springgay, 2008). 기존의 체계화된 이론적 절차를 따르는 연구방식을 넘어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연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토그래피는 미술교육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며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실행기반(practice-based)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토그래피는 연구 과정 속의 연구자 스스로 행동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기 성찰을 강조하며 예술 행위와 결합된 통찰적 시각을 통하여 연구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참여적 형태를 띤다. 연구자의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김선아(2014)는 질적 연구가 ‘직접 해보는 것’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속성에 기인한다고 말하며 연구자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 현장 속에서 직접 의미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되새겨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현장에서 수업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는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며 실제적 과정 안에서 주도하며 갖게 되는 구체적 의미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들은 미술교육 현장의 실제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데 기여하고, 교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의 정립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성찰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출하기 위한 아토그래피 연구로서, 본 연구자가 실시한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각저널 작업을 진행하고 해석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미술교육을 위한 수업은 2017년 4월~7월 까지 초등교사인 연구자에 의해 총 7차시로 진행되었다. 수업 시간은 주제와 학습활동의 양,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1차시(40분), 2차시(40분), 3·4차시(80분), 5·

6·7차시(120분)로 개별 차시 및 블록 차시로 구성하였다.

수업 대상은 연구자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의 학생 30명(남학생 18명, 여학생 12명)이었고, 이민배경가정이 아닌 양부모 모두 일반 가정 학생으로 다른 인종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 않고 한정적인 편이었다. 타인종에 대한 주된 경험은 미디어나 책에 의한 간접 접촉이 많았고, 해외여행을 통한 경험 또는 주변에서 간혹 지나치는 사람을 만난 정도로 직접적 접촉 경험은 많지 않은 상태였다.

본 수업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간접적이거나 다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다문화적 수용성을 함양할 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반편견 다문화미술교육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인종적 편견 의식을 마주하고, 인종 편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시각화 작업 등을 통해 드러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스스로의 편견을 직접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인종 편견 의식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공하였다.

아토틀라피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업 후 반성적 일지를 작성하며, 이를 다음 수업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반편견 다문화미술교육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차시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차시 수업의 피드백을 위하여 수업을 녹음하고, 학생결과물을 분석하고, 수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소주제와 대주제를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종류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의 종류는 크게 '반편견 다문화미술 수업 자료'와 '아토틀라피 자료'이다. 반편견 다문화미술 수업 자료는 학생결과물, 녹음자료, 수업일지로 구성되어 있고, 아토틀라피 자료는 키워드에 따른 소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세 가지 대주제를 설정하여 시각저널을 작성하여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표 1〉 자료의 종류

반편견 다문화미술 수업 자료 종류			아토그래피 자료 종류		
학생 결과물	녹음 자료	수업 일지	키워드에 따른 소주제 설정	대주제별 시각저널	시각저널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시 그린씨클에 인종 페이퍼 차일드 배치하기 (2회) ▣ 1·2차시 활동지 ▣ 3·4차시 모둠별 캠페인 작품 계획서 ▣ 5·6·7차시 모둠별 캠페인 작품 및 발표 녹화 자료 	차시별 수업 녹음 자료	차시별 교사 수업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편견의 변화 ▣ 편견의 양상 ▣ 시각적 표현의 양상 	'편견의 양상' 시각저널	'편견의 양상'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방법에 대한 성찰 ▣ 교사의 의식태도 	'교수방법 성찰' 시각저널	'교수방법 성찰'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존중적 태도 함양 	'다문화 수용성' 시각저널	'다문화 수용성' 분석자료

2. 반편견 다문화미술교육의 내용

본 연구는 실행연구로 진행된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각저널을 작성하여 아토그래피의 적용이 다중적 주체인 교사의 성찰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다문화미술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교육의 목표 중에 '인종주의에 대한 경각심 함양'은 아동·청소년의 인종주의적 경향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이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Nieke, 2000). 본 수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인종 편견 실태를 살펴보고 편견의 감소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편견적 인식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수업이 인종 편견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수업을 구상하기 전 학급 학생(30명 중 29명 참여, 1명 결시)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다문화감수성 척도(정혜숙·안상수·권소영, 2014)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한 선입견들이 나타난 항목들이 있어서였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 검거나 눈 색깔이 파란색이면 한국인이라 할 수 없다'에서 7명이 '보통이다', 2명이 '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우리나라 사람과 머리카락, 피부색, 눈 색깔이 다르면 친한 친구로 삼기 힘들다.'에서 4명이 '보통이다', 4명이 '그렇다', 1명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피부색이나 생김새 때문에 놀림을 받아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에서 6명이 '보통이다', 2명이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고, ‘나는 다문화가정 아이와 내 비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에서 1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5명이 ‘그렇다’, 6명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싫을 것 같다.’에서 1명이 ‘매우 그렇다’, 1명이 ‘그렇다’, 4명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 응답이 모두 부정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건 아니지만 학급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겉모습에 대한 편견이 확인되어 인종 편견을 주제로 삼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학생들의 다른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미술수업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인종에 대하여 유연하게 사고하여 다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편견 다문화 미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1차시(40분)에는 주변 사람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 본 후,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인종에 대한 생각을 ‘인종 페이퍼차일드’를 이용하여 그린씨클에 배치하는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인종 페이퍼차일드’는 본 연구자가 합성하여 사용한 낱말이다. 페이퍼차일드(paper child)는 네이버 오픈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낱말로 ‘그림으로 만화를 그린 후 연출을 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합성된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노는 놀이’라고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종이 인형을 일컬어 ‘인종 페이퍼차일드’로 사용하였으며 1·2차시에서 다양한 인종의 종이 인형들을 오린 후 도화지의 그린씨클(초록색 원)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인종 종이 인형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본 활동에서 그린씨클 시각화 작업의 의미는 학생 자신의 안전하고 친숙한 공간을 말하며 이 초록색 원 안에 학생 자신의 사진을 먼저 위치하게 하고 그 주변에 다양한 인종의 종이 인형을 배치함으로써 학생과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2차시(40분)에서는 인종 편견을 주제로 한 동화를 감상하고 그린씨클 재배치 수업을 통해 편견의 변화 정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동화의 내용은 기차역에서 무언가를 물어보려던 동남아인이 다가오자 주인공 남자가 범죄자로 오해하며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아이들은 오해받는 외국인의 속마음이 어땠을 지를 생각해보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며 외국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3-4차시(80분)는 인종 관련 그림책을 감상하고, 인종 반편견 캠페인 작품을 모둠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였다. 「인종이야기」 그림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서로 같고 어떤 것은 다르다는 내용을 통해 사람들이 겉모습은 달라도 똑같은 사람이라

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점을 담고 있다. 마지막 5-6-7차시(120분)에서는 인종 반편견 캠페인 작품을 모둠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협동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캠페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행한 반편견 다문화미술 수업의 세부 활동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실제 수업 장면에서는 다문화감수성 질문지에 응답에 나타났던 피부색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아동 이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서 피부색과 인종 편견에 대한 거리감이 관찰되었다.

<표 2>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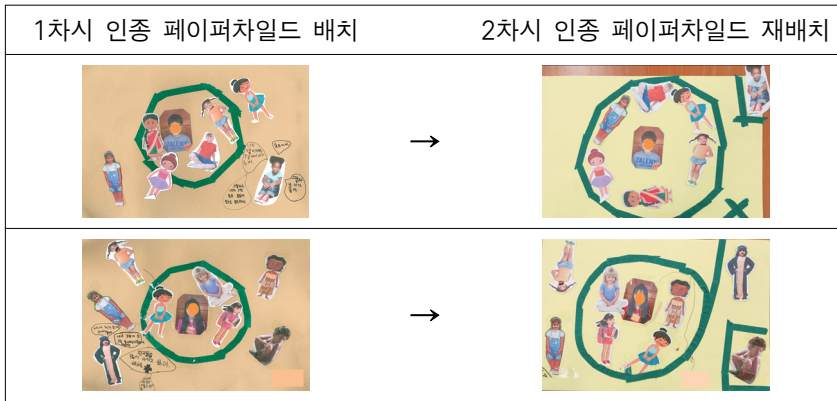
차시	주제	활동목적	수업흐름	활동내용	시간
1	인종 페이퍼차일드의 입장 이해하기	인종에 대한 인식 점검과 인종 페이퍼차일드의 입장 이해하기	생각열기 생각 이끌어내기 생각 표현하기 소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의 인물에서 같음과 다름 찾기 ▣ 다양한 인종 페이퍼차일드의 같음과 다름 찾기 ▣ 그린씨클 만들고, 인종 페이퍼차일드 배치하기 ▣ 인종 페이퍼차일드의 입장되어 표현하기 ▣ 짝의 소외된 페이퍼차일드에게 '선플' 쓰기 ▣ 활동 소감나누기 	40'
2	인종 편견적 상황 마주하기	인종 편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에 대한 인식 재점검하기	생각 열기 생각 이끌어내기 생각 표현하기 소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점으로 그림 감상하고,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 TV동화 '기차역에서 만난 외국인' 동영상을 보고, 소감나누기 ▣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빙산 그림에 표현하기 ▣ 지난 시간에 배치했던 그린씨클 작품을 살펴보고, 오려서 재배치하기 ▣ 지난 시간과 오늘 표현한 그린씨클을 떠올려 보며 소감 나누기 ▣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40'
3 · 4	인종에 대한 반편견 캠페인 작품 계획 세우기	인종에 대한 반편견 캠페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작품 계획하고, 계획 점검하기	생각 열기 생각 이끌어내기 생각 표현하기 소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 그림책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기 ▣ 캠페인 예시 작품 감상하고, 캠페인 작품 만드는 순서 알아보기 ▣ 인종에 대한 반편견 캠페인 작품 계획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기 ▣ 모둠별 캠페인 작품 계획 발표하기 ▣ 친구들과 제안, 칭찬 등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80'
5 · 6 · 7	인종에 대한 반편견 캠페인 작품 만들고 발표하기	반편견 캠페인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 발표하기, 소감나누기	생각 열기 생각 이끌어내기 생각 표현하기 소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 작품 계획서를 살펴보고 보완하기 ▣ 인종에 대한 반편견 캠페인 작품 계획서를 보며 역할 분담하기 ▣ 협동하여 캠페인 작품 제작하기 ▣ 모둠별 작품발표 및 캠페인 활동 계획 발표하기 ▣ 활동 소감나누기 	120'

IV. 다문화미술교육에서 아토그래피의 적용

1. 반편견 다문화 미술수업의 결과물 분석

반편견 다문화 미술수업을 통해 수집된 결과물은 '학생 시각화 작품(인종 페이퍼 차일드를 배치한 1·2차 그린씨클 작품, 모듬별 캠페인 작품), 학생 활동 학습지, 녹음 자료, 교사수업일지'이다. 차시별 수업의 결과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코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두드러진 특징에 따라 '편견의 양상, 교수방법 성찰,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측면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코드-주요 코드-범주-최종 주제'를 도출하는 세부 과정은 <표 3>과 같다.

첫째, '편견의 양상'을 대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반편견 교육을 수업목적으로 인종 편견을 인식하고 완화해나가기 위해 구성된 수업으로, 그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반편견 교육에 나타난 실제적인 의미들을 찾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의 실행과정 중에 나타난 학생들의 편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예를 살펴보면, 1차시 '그린씨클에 다양한 인종 페이퍼차일드 배치하기'활동에서 학생들은 자기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 페이퍼차일드를 주변에 배치하면서 인종에 따라 거리감을 두고 배치하였다. 그린씨클 밖에 배치된 인종들은 피부색이 검거나 어두운 경우, 옷차림이 허름한 경우,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남녀 차별이 적용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따라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경우에도 실제 배치에서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사진과 가까이 배치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차시 수업의 그린씨클 재배치 활동에서는 다수의 아이들이 자신과 멀게 두었던 인종 페이퍼차일드를 가까이 배치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거나 또 다른 편견의 모습인 남녀 차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데이터를 통해 얻은 코드는 '외모, 다른 점, 관점 변화, 긍정적인 변화, 교훈'이었고 이를 범주화하여 '학생들 편견의 변화, 편견의 양상, 시각적 표현의 특징'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이러한 유추 과정들이 '편견의 양상'을 하나의 최종 주제로 설정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다음 그림은 학생 시각화 작품 중 인종 페이퍼 차일드를 배치한 1·2차 그린씨클 작품이다.



〈그림 1〉 1·2차 그린씨클 작품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을 두 번째 대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이인재(2010)가 제안한 것처럼 초등학교의 반편견 교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교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 실행 과정에서 교수방법에 대한 오류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수업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이행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반응과 상황적 변수에 따라 학습활동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수업 도중 교사의 언행에 매우 유의하며 교사가 반편견 교육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수업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편견과 선입견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지점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모둠의 인종 편견 캠페인 작품의 내용 중에 ‘백인 쿠키’라는 인물(캐릭터)이 ‘흑인 쿠키’에게 인종 차별적 행동을 하게 되어 이를 단죄하기 위해 ‘백인 쿠키’를 오븐에 구워 ‘흑인쿠키’로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아동들이 백인을 흑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일종의 큰 벌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이 7차시까지 모두 종료된 후 아토그래피를 작성하며 이를 깨닫게 되면서 교사로서 인종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즉시 적절한 반응을 해주었더라면 학생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흑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 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처럼 아토그래피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수업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작품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것을 반복하며 자신의 작품을 수정해 나가는 것처럼, 아토그래피는 수업을 다양한 거리에서 조망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아토그래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번갈아 가며 성찰하는 것은 교사의 비판적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한 주요 코드는 ‘자발적 참여유도, 경험 만들기,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활동 방법, 격려, 과정의 중요성, 역할 분담, 갈등 중재’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방법에 대한 성찰’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주요 코드는 ‘수업 목표 도달, 학생의 깨달음 유도, 교사의 편견과 선입견, 성찰, 수업 필요성, 보람, 시간에 대한 조바심, 교사의 유도에 의한 타의적 집중, 짚어야 할 문제, 지속적 필요성’에서는 ‘교사의 의식 및 태도’라는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두 가지 범주를 토대로 ‘교수방법 성찰’을 최종 주제로 결정하였다.

세 번째 최종 대주제는 ‘다문화 수용성’이다. 민무숙은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을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여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이선아·방기혁, 2017, 재인용). 이번 수업을 통하여 연구자 학급 학생들의 인종적 편견이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었고, 이러한 편견은 다문화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업결과물에서 발견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추출한 코드 ‘동등함, 안전한 공간, 친숙함의 유무, 호의적, 나·너·우리, 적극적 공감, 타인의 입장, 동정, 감정이입, 인권 존중, 차이 인정, 구분, 타인 이해, 공감과 존중의 중요성, 평등, 공존’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문화시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감과 존중적 태도 함양’의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공감과 존중적 태도 함양’은 다문화 수용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기에 최종적 주제로 ‘다문화 수용성’을 설정하게 되었다.

〈표 3〉 주제 도출 과정

최종 주제	편견의 양상			교수방법 성찰		다문화 수용성
범주	학생들 편견의 변화	편견의 양상	시각적 표현의 특징	수업방법에 대한 성찰	교사의 의식 및 태도	공감과 존중적 태도 함양
주요 코드	외모, 같은 점, 다른 점, 관점 변화, 긍정적 변화, 교훈, 안도감, 지속성	선입견, 외모, 공통점, 차이점, 거리감, 구분, 다른 차별, 성차별, 차이, 편견, 꺼리다, 흑과 백	거리감, 시각 자료, 표현방법, 완화, 과격함, 극단적, 자극적, 인기, 재미, 미적 표현력, 포스터, 캠페인, 홍보, 만화그리기, 전시	자발적 참여 유도, 경험 만들기,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활동방법, 격려, 과정의 중요성, 역할 분담, 갈등 중재	수업 목표 도달, 학생의 깨달음 유도, 교사의 편견과 선입견, 성찰, 수업 필요성, 보람, 시간에 대한 조바심, 타의적 집중, 질어야할 문제, 지속적 필요성	동등함, 안전한 공간, 친숙함의 유무, 호의적, 나·너·우리, 적극적 공감, 타인의 입장, 동정, 감정이입, 인권 존중, 차이 인정, 구분, 타인 이해, 공감과 존중의 중요성, 평등, 공존
코드	피부색, 옷차림, 낯설어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흑인이라서, 방향을 바꾸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 그린 색깔에 공간이 없다, 소외감, 나도 모르게 차별, 친구가 될 수 없다, 다음부터는 잘해야, 인종차별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다, 차별하지 말고 나쁜 것은 말한다, 내가 차별을 받는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불쌍, 우리는 같은 사람, 반성, 다독임, 벌, 나쁜 행동, 모두 열심히, 기회, 직접 캠페인해보자고, 이어 나가자고	키, 몸무게, 안경, 옷, 성격, 모두 사랑, 인종, 고향, 몸 색깔, 태어난 나라, 진짜가짜, 흑인, 백인, 내가 흑인이라서, 다양한 인종, 몰랐던 장종, 말이 어수룩, 허름, 동남아인, 오해, 불쌍, 저렇게 작아, 못생겼다, 이상하게 나와 다른 인종, 약한 흑인이 너무 안쓰러워, 뜻하는 행동과 다르다, 입장 바꿔, 남녀차별, 치우치는 마음, 의견 충돌, 잔인, 꺼려, 구워져서까만 쿠키, 걸만 다를 뿐 속은 누구나 같다	안과 밖, 다양, 피부색, 속마음, 위로, 자유롭게, 인지, 수면 아래, 반응, 고민, 만화그리기, 포스터 팸말, 미국경찰, 체포, 인종문제가 담겼는지, 좀 더 평화적인 말, 죽이는 내용 말고 서로 친해지는, 잔인, 너무 옳다 그러다, 격정, 폭력게임, 장난, 행진, 흑인과 백인, 백인쿠키가 오븐에 구워져서까만 쿠키가 되는 별, 총, 사망, 피, 서로 입장 바꿔, 무지개처럼, 미스터백, 미스터흑, 전시	주변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 우리가 몰랐던 것, 스스로의 생각, 초조, 관찰 오리기, 치우치는 마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접 경험, 방향을 바꾸어 보기,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 숨겨진 의미, 알게 하고 싶어서, 직접 목소리 녹음, 질문 거리, 멀리 알리고 깨우침, 아쉬웠지만, 의견 조율, 순회지도, 골고루, 늘 그렇듯, 전체 집중, 계속, 서로 칭찬, 의견 교류, 자기 평가, 교육 받을만한, 기대, 해결되지 않는, 작품계획, 역할 분담, 평소, 중재, 계속 하고 싶다, 정신없이, 물입을 유도하기 위해, 격려하며, 요구	초조, 순서 강조, 시간, 수업목표 도달, 사람들이 나에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재배치, 크기 바꾸거나 모양 바꿔도, 편견 갖지 않았다, 배우니 뿌듯, 아쉬웠지만, 유도하진 않았는지, 의견 조율, 표현방법 다양하게, 바른 자세 구호, 여러 번 외친 후, 역할 분담, 골고루, 강조, 늘 그렇듯, 결국, 팔짝 참아 삼켰다, 의견 충돌, 중재, 격려, 잔인하고 극단적인 느낌, 잔소리, 부끄러움, 다독임, 분명, 기회 마련, 마음과 생각에 분명한 변화, 어려운 점	경청, 모두 가족, 고향, 태어난 나라, 흑인, 백인, 다양, 터치, 놓이처럼, 슬픔, 원망, 소외, 삶은 이유, 한참 고민, 괜잖아, 내가 친구해줄게, 스스로 직접 확인, 의외, 다양한 문화 이해, 숨겨진 의미, 속상, 다른 인종 오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나만 생각, 우리와 다를 수 있는 사람, 귀찮다, 차별을 많이 한다, 한국말을 못한다, 약한 흑인이 안쓰럽다, 도와주고 싶다, 뜻하는 행동과 다르다, 외국인 심정,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재배치, 이제는 모두 안에, 인종차별이었는데 오늘은 남녀차별,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차별 받는다면, 원이 더 커져서, 모든 사람이 들어감, 편견 하지 않게, 우리는 하나, 겉모습 다르지만, 살갗 벗으면 똑같은, 골고루, 흑인과 백인이 같다, 제되고 유익, 차별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다, 빨리 캠페인 하고 싶다, 기대, 편견은 누구에게나 기분이 나쁘므로 하지 말아야,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 무지개처럼, 더불어 살자

2. 아토틀라피를 통한 교사의 자기 성찰

다문화교육이나 반편견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학교 환경, 교직원, 학부모 인식 등의 복잡한 요인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교육의 장면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현장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교사의 대처는 실행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수학습 반응들에 직접적으로 매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모경환, 2009).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기대 수준을 지니려고 노력해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다문화적 경험에 대한 층위 등을 점검하고 교육의 내용들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 특히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가 무엇보다 다문화적 가치관과 반편견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연구자가 가지는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교사·연구자·예술가로서의 다중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숙고하고자 아토틀라피를 적용하게 되었다.

1) 아토틀라피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아토틀라피의 표현 방법으로 성찰적 시각저널을 제작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의 결과물인 학생작품, 학생 학습 활동지, 수업 녹음자료, 교사 수업일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콜라주와 페인팅 작업을 이용하여 도출된 ‘편견의 양상’,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 ‘다문화 수용성’ 주제에 대한 시각저널을 제작하고 이의 의미를 해석하는 성찰적 글쓰기를 진행하여 아토틀라피를 완성하였다. 다음은 각 주제별 시각저널의 세부 내용이다.

(1) ‘편견의 양상’에 대한 시각저널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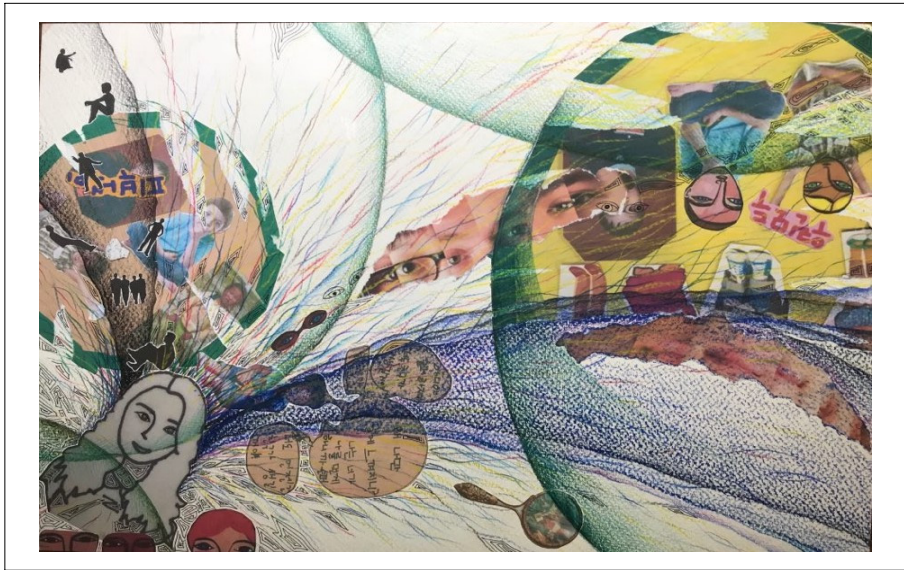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한 미적 표현활동은 크게 ‘그린씨클에 인종 페이지차일드 배치하기(1차, 2차)’와, ‘캠페인 작품 제작하기’로 나눌 수 있다. 수업을 하고 난 뒤, 눈에 띄는 특징을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의 ‘편견의 양상’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 수업일지에 나타난 학생들의 편견의 양상을 관찰한 부분이다.

2차 재배치 활동에서는 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그린씨클을 좀 더 크게 키워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하여 좀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아이들에 따라 인종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달랐다. 두 번째 배치까지 포용 받지 못한 인종은 피부색이 유독 어두운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배치를 한 아동들의 '편견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보였다. (중략)

캠페인 작품 만들기 활동에서 나타난 현상은 여덟 모둠 아이들이 다룬 내용이 모두 흑인과 백인의 차별에 대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여덟 모둠, 반 전체 30명의 아이들이 편견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인의 흑인 차별을 다루었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 인종 관련 뉴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인 상관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을까하는 우려가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묘사한 장면에는 다소 폭력적인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차별, 총, 욕, 폭력적 행동, 피, 경찰, 감옥, 벌, 수감'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게임, 전쟁 등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축적되어 내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교사 성찰 일지 중).

학생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편견적 양상에서 11살의 초등학생들 역시 피부색이 검거나 차림이 허름한 걸모습에 따라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 등에 의한 고정관념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외모와 경제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회구성물들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나 교실 환경, 교사의 언행 등에 대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반편견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에 꾸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2〉 시각저널1

[편견의 양상], 2017, 11월, 수채화 종이에 수채화색연필·콜라주 재료, 385×260mm

위와 같은 편견의 양상들을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재료와 표현방법을 사용할지 연구자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였다. 수업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 느낀 것을 스스로 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4B연필, 미술용 지우개, 수채화색연필, 크레용 등을 선택했다, 그리고 질감이 느껴지는 두툼한 수채화종이를 골랐는데 그 이유는 뭔가 수업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고민이나 돌발적 상황들을 표현하기에 매끄러운 종이보다는 오돌토돌한 질감이 적합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간편한 표현이 섬세한 묘사보다는 직감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의식적인 감각을 통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저널에 등장한 시각이미지 표현 순서는 '연구자 초상화 → 여러 겹의 질고 푸른 물결선 → 초록색 원(그린씨클)과 인종 페이퍼차일드 → 검정색 연기와 같은 형상 → 다양한 인종들의 시선 → 인종이야기 동화책에 나오는 얼굴들 → 다양한 인종들의 눈과 입 → 거울 → 다채로운 색깔의 짧은 물결선 → 가는 선으로 묘사된 파편 조각'으로 그려졌다. 이미지를 한 가지씩 추가할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그리게 되었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 깊은 몰입감을 경험하며 희열감 같은 것도 느

껴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손이 갔는데 이러한 행동은 수업의 과정을 좀 더 완벽하게 구성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교사의 염원과 같은 마음과 불안감으로 비유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저널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그려야 할지 많은 고민과 긴장감이 느껴졌다. 시각저널을 제작하면서 작성한 메모에서 시작 초기의 생각과 기분,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나를 가정 먼저 배치한 이유는 이 수업이 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어 실행되었기 때문이고, 수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교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내 초상화로부터 시작되어 화면의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여러 겹의 길고 푸른 물결선은 교사로부터 출발된 수업의 아이디어와 과정들이 큰 물결이 되어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 속에 흘러들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 또한, 교사의 영향력은 수업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표현하게 되었다(2017년 11월 4일 작업 메모 중).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반편견 교육을 위한 학습 경험들을 꾸준히 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다수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인종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수업과 경험들이 반복되어 제공된다면 학생들의 인종 편견은 차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고, 이러한 희망적 과정을 점차 색이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시각저널에 표현하고 싶었다. 다음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나타난 인종 편견의 양상에 대한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한 부분과 이러한 편견적 양상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하는 교사로서 가지는 태도와 기대감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글이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 그린씨클 안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아동 자신과의 거리를 둔 경우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인종 편견에 대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저널에서는 완전하고 선명한 초록색의 원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라데이션 기법과 겹쳐 그리기를 이용하여 인종 편견에 대한 변화의 기로, 고민, 갈등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러한 변화로 일렁이는 마음들이 언젠가는 점점 더 선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왼쪽 위, 작은 원은 1차 그린씨클을 나타낸다. 이 원의 초록색 띠는 경계를 군데

군데 뜯어내어 허물어지도록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업의 상황 속에서 인종 편견에 대하여 변화를 맞이하고 고민의 과정을 거쳐 가며 해체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선입견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현재는 고정된 것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중략)

초상화로부터 시작되어 그려진 다채로운 색깔의 짧은 물결선들은 셀 수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한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교사의 민감한 신경세포들을 의미한다. 이 신경 세포들은 교실 속 내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과 만나기 위해 늘 다양한 수업 소재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되길 바라는 바람을 나타낸다. 현실의 교실에서는 늘 의미 있는 상호작용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등의 무지갯빛으로 나타난 수많은 교사의 신경 세포들은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와 만나 반응하고, 충돌하기도 하며 분화할 것이며 서로를 위해 의미 있는 기억을 새기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가는 선으로 묘사된 파편 조각들은 물결선 사이를 채우고 있는데 수업의 여러 활동 중에 생겨나는 작은 갈등들이 갈등의 과정을 거치며 의미의 조각들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부분들조차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작업 메모 중)

(2) '교수방법 성찰'에 대한 시각저널의 분석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를지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다. 담임교사로서 학급을 경영할 때 나는 종종 '더불어 숲'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곤 한다.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다양한 종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커다란 숲이 되고 꿈틀대는 생명체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해 더 깊은 전인적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시각저널의 중심 이미지를 나무로 비유하게 되었다. 나무의 생태는 교사의 일상과 비유된다.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려고 땅 속 깊고 어두운 곳을 더듬어 가며 저 끝으로부터의 자양분을 얻기 위해 뿌리 속 세포를 잘게 분화시켜 길게 뻗어 나아가고자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나무는 흡수한 양분을 나무꼭대기의 잔가지 끝까지, 새싹의 망울까지, 잎맥 사이사이에 잘 전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에는 이러한 생명적 집요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뭇가지와 잎들은 뿌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영양분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어내는

성장통을 겪어가며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 교사가 만들어 주는 교육적 영양분을 받아들여 게 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깊이에 따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의 과정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 보고, 아동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그림 3〉 시각저널2

[교수방법 성찰], 2017, 11월, 수채화 종이에 수채화색연필·콜라주 재료, 385×260mm

두 번째 시각저널의 이미지들을 나무에 빚대어 표현된 또 하나의 이유는, 교사의 정체성과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다음의 글은 다문화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관계를 나타낸 시각적 이미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잔가지들은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본 수업의 교육적 갈등의 여러 변수들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수업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숙고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을 상징하는 나뭇가지와 잎을 다양한 색으로 꾸민 이유는 저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나타내며 뿌리로부터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양소가 제각각 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의 깊이가 얼마나 민감하게 교수행위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무에 매달린 여러 가지 형상들 '시계, 연구자 다이어리, 손, 연구자 사진, 눈, 아이, 아늑한 집' 등은 반편견 수업을 준비하면서 활동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고자 하는 교사의 계획과 실행, 수업 소재들을 나타내는 교사의 생각 퍼즐 조각들이다. 이 형상들은 다양한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기도 한다. 왼쪽 모서리 쪽으로 위태로운 듯 매달려 있는 손목 시계는 수업 구성에서 다루어야 할 효율적인 시간 안배에 대한 평소의 고민을 나타내는 모습이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다이어리는 쳇바퀴 돌 듯 규칙적인 학생들과의 학교생활패턴을 상징한다(2017년 11월 19일 작업 메모 중).

본 시각저널의 왼쪽 위에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이번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림 4>는 모둠별 캠페인 작품으로 대부분의 주제가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둠의 캠페인 작품결과물 대부분에서 학생들의 편견의 양상이 백인의 흑인 차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찰한 교사가 다음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전 차시의 학생들의 학습반응이며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이 다음 수업의 교수학습내용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은 흑인과 백인 소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저널 내용이다.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를 붙인 이유는 반편견 다문화 미술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종적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며 교사가 수업을 돌아보고 학습자 반응의 특성으로부터 발견되어진 것들이 다음 차시의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선택한 이미지이다. 또한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과거 서양사회의 비누 광고가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낸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단죄적 표현들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 비누 광고 이미지는 말쑥한 차림의 백인 소녀가 낡은 옷을 입은 흑인 소녀에게 “엄마한테 ‘요정’표 비누를 사달라고 하지 그러니?”라고 묻는 광고인데 다소 황당한 제안이 아이들의 매끄럽지 않은 캠페인 표현과도 비슷하여 본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광고는 작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논란거리가 될 때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기도 한다(작업 메모 중).



〈그림 4〉 모둠별 반편견 캠페인 작품

시각저널의 화면의 왼쪽 위와 오른쪽 중간 끝을 보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푸른 눈이 보인다. 이 두 푸른 눈은 서로에 대해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는 낯설음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삶속에서 다름에 대한 낯설음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주침의 순간’이 존재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다.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만남의 경험이 존재해야 갈등의 순간도 맞이하길 소통의 경험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 낯설음에 대한 마주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게 되었다. 수업의 주요 목적인 다름을 마주하는 경험 제공을 의미한다. 본 수업에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 페이퍼차일드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 낯설음으로 인하여 판단으로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과의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친숙한 공간에 인종 페이퍼 차일드를 배치하며 마음의 거리감을 나타냈고, 수업의 여러 활동들을 거치면서 거리감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반편견 수업을 통한 간접 경험이었지만, 학생들은 낯설음을 직시하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종에 대한 갈등을 직접 느끼고 극복해보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갖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루(H. Giroux)는 교사를 ‘문화노동자’로 간주하며 교사 스스로 사회정의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는 깨어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배재한, 2014, 재인용). 교사는 단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텍

스트, 대화, 행동에 대한 구성, 표현, 그리고 그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수학습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식하게 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다문화적 특성에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수업을 통해 다문화적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름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적 갈등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문화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시각저널의 분석

수업 분석을 통해 설정된 세 번째 최종 주제는 '다문화수용성'이었다. 인종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이 아닌 타인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편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각화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린씨클에 인종 페이퍼 차일드 배치하기'가 개인 안에서의 인종 편견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었다면, '인종 편견 예방 캠페인 작품 만들기'는 모둠 친구들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협력하여 인종 편견 예방 작품을 완성해가는 집단 시각화 작업이었다. 이 두 활동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편견을 인식하고자하는 태도가 선행되는 것이 편견 극복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각 개인이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존재하는 편견들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식하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되어져 버리고 잊혀 지며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자동반사적인 습관으로 굳혀져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자동반사적인 선입견을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순간에 편견의 실체가 드러나고 반성해 볼 여지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의지를 갖게 되는 순간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경청'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중앙에 배치된 '두 귀'와 '귀 옆에 동그랗게 모아진 두 손'은 경청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흰 잡지와 낡은 책을 뒤적이다가 귀 기울이는 아이의 모습과 여러 겹의 꽃잎이 겹쳐 활짝 피어난 모습을 합성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청'하려는 마음이 짐이 피어나길 바라는 바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에게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적 의식을 점검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면 의지를 갖고 경청하기 시작함으로써 편견적 인식이 점차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성숙된 인간관계의 형성을 돕게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찾아오는 기쁨을 기대하며 도화지에 표현하고 싶어 화면 전체에 걸쳐 활짝 피어나며 만개하는 꽃의 이미지를 비유하여 표현하게 되었다.



〈그림 5〉 시각저널3

[다문화 수용성], 2017, 12월, 수채화 종이에 수채화색연필 · 콜라주 재료., 385×260mm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다른 하나는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타문화와 인종을 접촉할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름과 낯설음에 대한 이해의 폭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수업 장면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살아갈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 여러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불확실성을 지닌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 없이 중요한 체험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사고의 과정을 거쳐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다름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만개하고 있는 커다란 꽃잎들과 중첩되어 표현된 커다란 두 개의 손은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의미하며 아직 마주잡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문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문화적 접촉 경험의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다.

화면 전체에 구불구불 이어진 식물의 넝쿨은 여러 색깔을 띠고 있는 다른 문화의 손들에 의해 닿거나 잡혀 있는데 소극적인 접촉과 적극적인 접촉을 의미한다. 짝 움켜잡은 손, 두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있는 손, 잡을까말까 고민하는 손, 미처 잡지 못한 손 등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표현하고 싶었다. 식물의 넝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불어넣는 에너지에 따라 잎의 수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할 것이며, 새로운 넝쿨의 탄생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넝쿨에 의해 연결된 문화는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각각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지구촌 전체의 하나의 문화로도 존재하며 서로 유기적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개하는 꽃의 배경색이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나누어져 표현된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상대적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생명력은 수용 능력에 따라 사그라질 수도 있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급변하는 다문화시대에 우리의 수용적인 태도에 따라 융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만든 문화의 운명을 나타낸다(2017년 12월 3일 작업 메모 중).

‘다문화적 수용성’을 통해 느끼게 된 점을 요약하면,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해 선행되어야 것은 학생들과 교사 자신이 가지는 편견을 먼저 인식하고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의지를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경청’ 하는 것으로부터 다문화 수용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이며 수업 장면을 통해 경험한 다문화적 경험은 다문화시대에 살아갈 유연한 사고를 키워 불확실성을 지닌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갖게 되는 다문화적 유연한 사고란 우리와 다른 문화·인종적 괴리감에서 오는 차이를 상대의 고유한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학생 자신과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3. 논의

본 연구는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을 예술기반연구인 아토프라피를 적용하여 수업의 과정을 시각적 재현을 통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교사의 성찰적 태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교사의 맥락적이고 다각적인 성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사의 자기 연구, 예술기반연구, 다문화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아토

그래피가 교사의 자기 연구에 가지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교사의 자기 연구’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정을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내용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기반연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객관성과 확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의식 또한 다문화감수성 척도 검사나 수업 전사 자료, 수업일지의 텍스트적 분석을 넘어 확장되었다. 의식하지 못했던 교사의 편견이나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에서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을 간과하였던 점 등에 대한 발견을 통해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반경이 넓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아토그래피 적용이 점차 다원화되어 복잡해지는 요즘의 사회와 역동적인 교육현장의 내부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의미들을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 새로운 반성적 도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예술기반연구의 개념에서도 밝혔듯이 과학의 영역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온 ‘연구’에 있어서 아이스너를 중심으로 창의적·미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다. 특히 교사 스스로 복잡한 사회와 학습자들의 생활세계를 맥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자기 연구를 다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반성의 영역을 넓혔다고 여겨진다. 이는 교사가 현장의 연구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기도 하는 ‘자기 연구’가 연구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복수적이고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서제희, 2015). ‘자기 연구’ 측면에서 아토그래피는 언어적 텍스트 안에 경계 지어져있거나 접혀져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화면에 시각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세부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의 영역을 확장시켜 준다. 다시 말해, 수업 당시 작성되었던 교사 수업일지에서의 수업의 과정 중에 드러났던 학생들의 반응과 상호작용, 교사의 태도, 수업의 효과에 대한 묘사는 언어적 텍스트 안에서 경직된 표현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아토그래피의 적용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미묘한 상황의 의미들을 다양한 시각 이미지, 드로잉, 페인팅 등으로 적극적으로 재현됨으로써 미처 알지 못한 사실들을 펼쳐 보이며 자기 성찰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술기반연구’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아토그래피의 특성들을 실제적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기반연구는 이러한 실증주의적인 객관화된 방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들의 제한되어지는 해석들을 해방시켜주는 면이 있다. 배론과 아이스너(Tom. Barone, Elliot Wayne Eisner 2012)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할 때 신뢰도, 정확도, 표준화 등을 요구하는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실증주의적인 한계를 가진 명제적 언어가 아닌, 예술이 하나의 언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술이라는 형식이 가진 프레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간과했던 점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미정, 2017, 재인용). 본 연구에서 아토그라피의 적용은 언어적 텍스트로 정리된 수업결과물들을 토대로 언어적 표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콜라주, 드로잉, 페인팅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여 예술적 행위로 구현함으로써 예술만이 갖는 확장되고 유동적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강은영(2016)에 따르면 아토그라피는 예측 가능한 의미가 아닌 애매하고 유동적인 의미를 창출하며 일종의 여백들을 제공하며 '구멍들(Openings)'로 표현되어 시각저널이 열린 텍스트가 되도록 하여 독자의 경험과 엮어질 수 있는 대화의 장소와 기회를 열어두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화와 장소의 기회를 열어둔다는 의미는 성찰하는데 있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경청함으로써 더 다양한 해석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Pourchi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각적 재현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것과 아는 것 사이의 연결을 형성하고, '환유'를 통해 치환되며 친숙한 것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상을 더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강은영, 2016, 재인용). 아토그라피의 적용이 연구자가 선택한 다양한 시각이미지인, '크고 작은 초록색 원, 퍼지고 흘러가는 물결선, 생명력이 꿈틀대는 나무, 만개하는 꽃, 닿을까 말까하는 손' 등의 시각적 재현을 통하여 수업과정 중에 발견되고 관찰된 주요 키워드들을 더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은유적 해석을 다층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업장면들에 대한 더 깊은 공감과 몰입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마치 교사, 연구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묘하게 어우러져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내 자신을 점점 더 성찰 과정의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아 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측면'에서 교사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탐구에 대하여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앞서 예술기반연구에 대하여 논의할 때 거론하였듯이 '문화적' 탐구란 교수행위를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으로 나누지 않고 교사가 속한 사회적 맥락과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등의 관계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토그라피의 적용은 교사 연구자 학급 학생들의 선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인종적 편견에 대한 맥락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 일조하였으며 교사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고 구체화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해주었다. 미술교사의 다문화적 역량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김선아(2011)는 교사가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교육을 직접 실천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의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의 적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시각저널의 제작을 통해 수업 과정에서 간과했던 학생과 교사의 편견의 실제적 양상을 아토그래피를 통해 문화적인 맥락에서 재발견함으로써 교사의 의식과 태도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칫 그냥 지나치고 마는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환경 속의 사회구성물 등에 묻어나는 편견적 문화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수업 실행의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교사의 성찰적 시각이 다층적으로 드러나는 아토그래피를 적용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문화맥락적으로 더 공고히 할 수 있었고, 규범화된 수업기술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교사의 의식과 태도를 다문화적으로 통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던 인종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에 대해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예리한 통찰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과 반편견 교육적 롤 모델로서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탐구 측면에서의 교사의 다문화적 성찰은 다문화교육을 직접 실행해야하는 주체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교사 연구자가 자신의 교육적인 실천과 그 맥락을 다문화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통해 교육적 현상에 밀착하여 관찰하며 그 효과를 높여 연구자 개인을 넘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 맥락적인 유의미함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교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다문화적 현상들을 미술 수업을 통해 교육적 경험으로 제공하고 연구 실행 중에 있었던 교수행위에 대해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속한 현장의 맥락과 수업을 통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아토그래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였다. 수업 분석에서는 반편견 다문화미술수업의 결과물인 학생작품, 학생 활동 학습지, 수업 녹음자료, 교사 수업일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소주제들과 최종적 세 가지 대주제

를 도출하였다. 세 가지 대주제는 ‘편견의 양상, 교수방법에 대한 성찰, 다문화수용성’이며 콜라주, 드로잉, 페인팅 작업을 이용하여 시각저널을 제작하고, 시각저널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의미 분석을 위한 성찰 글쓰기를 병행하여 아토그래피를 완성하였다.

대주제별로 아토그래피 시각저널 분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견의 양상’에 대한 시각저널 작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학생들의 인종 편견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수업실행을 마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캠페인 작품의 흑인 폄하적인 내용을 재발견함으로써 교사가 가져야 하는 문화적 민감성이 학생들의 편견적 인식을 깨우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본 수업의 1·2차 그린씨클 작품의 인종 페이퍼차일드 배치를 통해 30명 중 21명의 학생들이 피부색이 검거나 허름한 차림에 대해 편견을 쉽게 바꾸지 못했던 점과 반편견 캠페인 작품의 내용이 백인의 흑인 차별에 집중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학생들의 다문화적 배경과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성물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터넷 매체, 텔레비전, 책 등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종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재를 이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수업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실제적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가 교육 자료로 손쉽게 사용하는 교과서, 학교 환경, 교사의 언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다. 둘째, ‘교수학습에 대한 성찰’에 대한 시각저널 제작을 통해 인식하게 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다문화적 특성에 문화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의식 및 태도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수업을 통해 다문화적 경험들을 제공하기 전에 학생들의 문화적 선경험들을 고려하여 수업에 반영하여 문화·인종적 다름에 대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돕는 것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문화적 갈등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일상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시각저널 제작을 통해 인식하게 된 점은 다문화수용성을 기르기 위

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학생들과 교사 자신이 가지는 편견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편견을 인식 한 후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인종 페이퍼차일드를 자신의 그린씨클에 놓아보며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위로의 선플 달기기를 하며 이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 활동을 통하여 인종적으로 소외되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간접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수업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 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다문화수용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수업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미술교육에서 아토그래피 연구 방법 적용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자기 연구'의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아토그래피 시각저널은 시각적 이미지들에 의해 은유적으로 재현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펼쳐 보이며 '교사의 자기 연구'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정 속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들이 도화지 화면에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채색되어지고, 오리고 붙여지며 특별한 구도를 만들어내며 이들의 연관성들이 한 눈에 보여 졌고, 학생들이 가지는 인종적 편견, 교사가 가지는 인종적 편견, 자신의 수업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역동적으로 구성되어지며 강렬한 이미지로 새겨지며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 교사 연구자로서의 조망 감각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토그래피 연구 방법의 적용이 교사 연구자들의 수업과 연구에 대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예술기반 연구'측면에서 바라본 아토그래피의 적용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아토그래피의 특성들을 실제적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적 소재들을 선택하는 과정과 시각저널을 제작하는 동안 연구자가 예술가가 되어 콜라주, 드로잉, 페인팅 등의 미적 표현을 경험함으로써 언어적 텍스트의 행간에서는 읽지 못했던 해방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롭게 재구성하는 창작과정을 통해 수업장면을 더욱더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시각저널의 미적 표현에 몰입하며 난감했던 점도 있었는데 주요 키워드들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작업을 하고 또 하며 시간이 계속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반성적 태도에 깊이 몰입되면서 수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내면에 깊이 각인되는 느낌도 들어 수업실행의 주체자로서 그동안 가졌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닌 '내가 왜 그랬

을까?’라는 후회되는 지점에서 계속 맴돌며 한동안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다문화 교육’ 측면에서 아토그래피의 적용은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문화적’ 탐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이다. 교사의 교수행위를 학습의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선상에 있는 맥락으로 이해하여 교사와 학생이 속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관점을 유지하며 학생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다문화미술수업이 가져야하는 필수적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성 있는 다문화수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선경험에 대한 문화적 점검들의 중요성을 맥락적으로 인지하여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을 하는 교사 연구자로서 학생들의 현재의 문화적 상태를 바탕으로 수업내용과 활동들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반응 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 둔감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이끌어내고 수업에 재반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환기하게 되었다. 아토그래피 작업은 수업의 장면을 더 잘게 쪼개고 합치며 다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적 민감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 교사의 성찰을 촉진하는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토그래피를 통해 교사, 연구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융합된 의미로 결합하여 다각적인 성찰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교사의 ‘문화적’ 탐구로서의 성찰을 섬세한 영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도하였지만 모든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지 기존의 규범화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한 연구방법들이 보여주는 방법이 아닌 실험적인 방법으로 시도한 본 연구가 교사연구자 학습에 한정지어진 반성적 태도로 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자칫 편향적인 결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지속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성찰적 관점을 아토그래피 적용을 통해 예술적 경험으로부터 얻고자 한 연구자의 첫 시도였다. 교사이자 연구자이며 예술가의 경험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성찰의 정도가 깊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다. 시도해보지 않았던 아토그래피 시각저널 작업은 수업에 대한 몰입감을 도와주었으며 다문화미술수업을 면면히 들여다보게 해주었고, 학생과 교사의 다문화적 둔감성을 일깨워주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너무 면밀히 검토하며 꼬리에 무는 이미지 시각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교사로서 다

문화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며 부정적인 면에 몰두하는 시간 동안은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결여되는 순간도 경험하였다. 또한 오랜만에 표현해보는 시각화 작업들이 부담이 된 부분도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 점도 있어 성찰의 과정이 어렵고도 긴 여정으로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 교사연구자로서의 성찰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다. 아토그래피의 적용을 통하여 교사, 연구자, 예술가로서의 다중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도전은 다양한 관점이 중요시되는 다문화시대에 더욱 필요한 성찰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술기반 연구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교사의 자기 연구와 성찰적 사고를 다층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아토그래피의 적용이 후속 연구로 확대되어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2009). 예술기반 교육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7(1), 45-59.
- _____(2016). 아토프라피(A/r/tography): 지속적인 과정 속에 존재하는 예술기반 연구. **조형교육**, 60, 1-24.
- 김선아(2011). 다문화미술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탐색. **미술과 교육**, 제12(1), 27-50.
- _____(2014). 질적 연구에서 자기 성찰의 의미와 방법: 미술교육 연구 방법론적 탐구. **한국조형교육학회**, 33, 39-57.
- 김선아 외 4인 (2016).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개념에 관한 기초 연구. **미술교육논총**, 30(1), 135-160.
- 남영림(2015). 사회정의를 위한 비판적 다문화 미술교육 탐색. **미술과 교육**, 16(2), 29-50.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26(4), 245-270.
- 박윤경(2006).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아동문학을 활용한 간접 접촉. **초등사회과교육**, 18(2), 27-45.
- 배재한(2014). 또 다른 가능성: 사회 정의를 위한 미술교육. **미술과 교육**, 15(1), 75-94.
- 서제희(2015). “자기 연구(self-study)”를 통한 미술교육 연구에의 적용 및 가능성. **미술과 교육**, 16(1), 89-106.
- 손지현(2010). 다문화 미술교육의 접근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31, 167-190.
- 안혜리(2011).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황과 대안: 동시대 미술을 통해 ‘타자(他者)’의 목소리 듣기. **미술교육논총**, 1-26.
- 이미정(2017). 예술기반 연구방법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가치. 2017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319-334.
- 이민정(2014). 삶 속의 다문화 미술교육과 미학적 접근방안, **미술교육연구논총**, 37, 1-24.
- 이선아, 방기혁(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837-856.

- 이인재(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초등학교 반편견교육. *윤리교육연구*, 22, 253-271.
- 이정연(2016). 초등학생의 문화포용성 분석을 통한 반편견교육 방안. *글로벌교육연구*, 8(1), 47-73.
- 이재현(2002). 초등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세계인종을 중심으로. **초등사회과교육**, 14, 33-51.
- 이종일(2010).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7(4), 105-120.
- 이혁규 외 3인 (2012).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의 필요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18(2), 5-43.
- 이재용, 이종연(2015). 초등교사의 자기성찰에 대한 체험분석. **교원교육**, 219-241.
- 장사형(2017).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와 그 적용의 적절성 고찰. **교육철학**, 62, 99-126.
- 정하나(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2), 83-112.
- 정해숙, 안상수, 권소영(2014).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 개발**.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보고서.
- 차윤경, 김미영, 김선아(2011). **예술로 배우는 다문화**. 서울: 대교.
- 추병완(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서울: 하우.
- 허영식(2010).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서울: 강현 출판사.
- Anderson, T. Gussak, D. Hallmark, K. K. & Paul, A.(2013). *Ar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노용, 강윤정, 김민경, 정유선 역). **사회정의**를 위한 미술교육. (pp. 3-16.)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10 출판).
- Banks, J. A.(2016).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5/E.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원저출판 2008).
- Barone, T. E.(2006). Arts-based educational research, then, now, and later. *Studies in Art Education*, 48(1), 4-8.
- Cahnmann-Taylor, M.(2008). Arts-based research: Histories and new directions, In M. Cahnmann-Taylor & R. Siegesmund (eds.) *Arts-based research in education: Foundations for practice*. (pp. 3-1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isner, E. E.(2006). Does arts-based research have a future? *Studies in Art Education*, 48(1), 9-18.
- Irwin, R. & Springgay, A.(2008). A/r/t/ography as practice-based research, In M. Cahnmann-Taylor & R. Siegesmund(eds.) *Arts-based research in education: Foundations for practice*. (pp. 103-1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199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반편견 교육 과정: 어린이에게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도구**. (이경우·이은화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89 출판).
- Quinn, R. & Calkin, J.(2008). A dialogue in words and images between two artists doing arts-based educ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Arts*, 9(5), pp. 1-29.
- Rolling, J. H. Jr.(2010). A paradigm analysis of arts-based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51(2), 102-114.
- Sinner, A. et al.(2006). Arts-based education research dissertations: Reviewing the practices of new scholar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9(4), 1223-1270.

[Abstract]

Applying A/r/tography A Study on Elementary Teacher's Anti-Bias Multicultural Art Education

Myojin SUNG

(Seoul Samil Elementary School, Hanyang University)

Sunah KIM

(Hanyang Universit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will enable students to face diversity without having a biased tendency to live as a member of society in a complex multi-dimensional society. In this study, a researcher who i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developed a multicultural art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racial prejudice in 7 lessons of 30 students in class. Based on the analysis of class outcomes, applying art-based research, Semi-prejudice three subjects from the results of the multicultural art class were produced and analyzed through three perspectives based on the aspect of prejudice, reflection on teaching methods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 the aspect of 'self-study', a/r/tography extended the scope of reflection to look at the meaning in detail and overall by visually expanding the parts that were bound or folded in the verbal text. In terms of 'art-based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a/r/tography is that the reflection of teachers is realized as an artistic act so that they can immerse more deeply in reflection and find the extended and fluid meaning of art alone. In addition, the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functions of visual images helped teachers understand various phenomena more colorfully. In ter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implication of the application of a/r/tography is that the immersion through the artistic work has strengthened the teachers'

problem awareness and multicultural check on anti-biased multicultural lessons. It was once again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teachers' consciousness and attitude.

Key words: Anti-bias education,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rt-based research, atopy, self-study

논문접수 2018. 2. 25	심사수정 2018. 3. 15	게재확정 2018. 3. 22
------------------	------------------	------------------